

5주차

사림파(士林派)의 집권과 성리학적 질서의 확산

김 성 우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성리학파의 출현

- 김종직의 점필재학파(佔畢齋學派)
- 김굉필의 한훤당학파(寒暄堂學派)
- 박영과 송당학파
- 1550년대 이후

02. 훈척세력과의 갈등

- 사화(士禍)의 발생
- 성리학 학파와 사화와의 관련성

03. 사림파의 집권과 노선 투쟁

- 사림파의 집권
- ‘신국가(新國家) 건설론’의 대두
- 붕당(朋黨)의 출현

04. 성리학적 지식인, 선비의 탄생

- ‘선비’와 ‘사(士)’
- 한국 유교화의 진전과 이상적 지식인으로서의 선비
- 이상적인 선비상(象)
- ‘원(原)(proto) 선비’

3차시

사림파의 집권과 노선 투쟁

학습목표

- 사림파의 집권 과정을 살펴본다.
- ‘신국가 건설론’을 둘러싼 사림파의 입장 차이를 살펴본다.
- 붕당의 출현과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학습내용

- 사림파의 집권
- ‘신국가(新國家) 건설론’의 대두
- 붕당(朋黨)의 출현

사림파의 집권

“ 중종 32년(1537)에 첫서리가 내렸고 명종 즉위년(1545)에
얼음이 얼었으며, 그로부터 20년 동안 끽끔 얼어붙었다.
명종 20년(1565)에 풀릴 조짐이 나타났으며, 선조 즉위년(1567)에
풀리기 시작했고 선조 3년(1570)에 완전히 녹았다. ”

유희춘(柳希春) 《미암일기》

사림파의 집권

1537년

- 중종 대 권신(權臣) 김안로 일파의 숙청 이후 대운과 소운의 권력 다툼이 본격화 한 시기

1545년

- 인종의 급서, 명종의 즉위 이후 문정왕후와 소운 측이 을사사화를 일으켜 대운과 송당학파를 제거한 시기

1565년

- 문정왕후의 죽음 이후 윤원형(尹元衡)을 위시한 훈척세력이 몰락하고, 사림파가 집권한 시기

사림파의 집권

1567년

- 명종이 후사 없이 죽자, 사림파가 종실 가운데 가장 총명한 하성군 군(河城君 鈞)을 선택하여 국왕(선조)으로 추대한 시기

1570년

- 대부분의 훈구파가 몰락하고, 사림파의 정국 주도권이 강화된 시기

최초의 성리학 군주, 선조

- 스승 이황: 13개월 동안 국왕의 학문 성취를 총괄함
- 성리학에 능통한 관료학자(노수신, 유희춘, 김난상, 김취문 등)을 경원관에 임명함



선조대왕어필병풍 전경

최초의 성리학 군주, 선조

- 선조에 대한 사림파의 입장
 - ‘태평성대’가 열릴 것을 기대
 - ‘선조의 경화(更化),
혹은 ‘유신(維新)’이라 부름

‘신국가(新國家) 건설론’의 대두

선조에 대한 사림파의 불안

- 원인: 국왕 선조의 비개혁적, 소심한 성격
 - 국가운영 시스템 붕괴, 국가 위기 상황 우려
- 1570~71년(선조 3~4)부터 개혁론 제기
- 1573~74년(선조6~7) 경쟁적으로 개혁론 제출

두 가지 개혁론

양민론(良民論)

교민론(教民論)

양민론(良民論)

- 국가 주도의 개혁론
 - 조정을 바로 잡음 → 백관을 바로 잡음 → 만민을 바로 잡음
- 국가기강의 확립, 제도 개선, 부세제도 개혁 등에 주목

양민론(良民論)

- 지지 세력
 - 훈척세력과 연결된 사림파
 - 서울, 경기도 지역 출신
 - 예: 이이, 성혼 등

교민론(教民論)

- 사족들이 주도하는 개혁론
 - 주자가례, 향약 실시 → 성리학적 예치사회(禮治社會)
 - 서원 건립, 향약 및 서치 시행
 - 주자가례에 입각한 상례(喪禮) 확립
- 사회 기강 확립과 풍속교화에 관심

교민론(教民論)

- 지지 세력
 - 퇴계학파, 남명학파, 화담학파 등
 - 경상도 출신 다수
 - 예: 류성룡, 김성일, 김우옹, 이산해 등

사림파의 분열

- 구신
 - 명종 대부터 활동, 중장년 관료
 - 향약에 유보적이거나 반대 의견
- 신진
 - 사림파 집권 이후 정계 진출, 연소한 관료
 - 향약에 우호적

향약에 대한 선조의 입장

- 선조 6년: 노수신이 우의정이 됨 → 신진계 개혁론 지지
- **선조 6년 9월: 선조가 향약 실시를 허가함**
- 교민론을 반대했던 구신계가 정계에서 퇴진

향약에 대한 선조의 입장

- 선조 7년 1월: 이이를 비롯한 신진계 일부, 구신계가 양민론 제기
- 선조가 향약 실시 불가 입장으로 바꿈

신진계 사림파의 분열

후진(後進)
향약 찬성
후배 관료

선진(先進)
향약 반대
선배 관료

붕당(朋黨)의 출현

1차 분열

후진(後進)
(교민론자)

VS

선진(先進)
(양민론자)

‘이조건랑권’을 둘러싼 대립

2차 분열

후진(後進)
김효원 중심
<주자가례>

VS

선진(先進)
심의겸 중심
<국조오례의>

명종 비 인순왕후 심씨의
국상(國喪)을 둘러싼 대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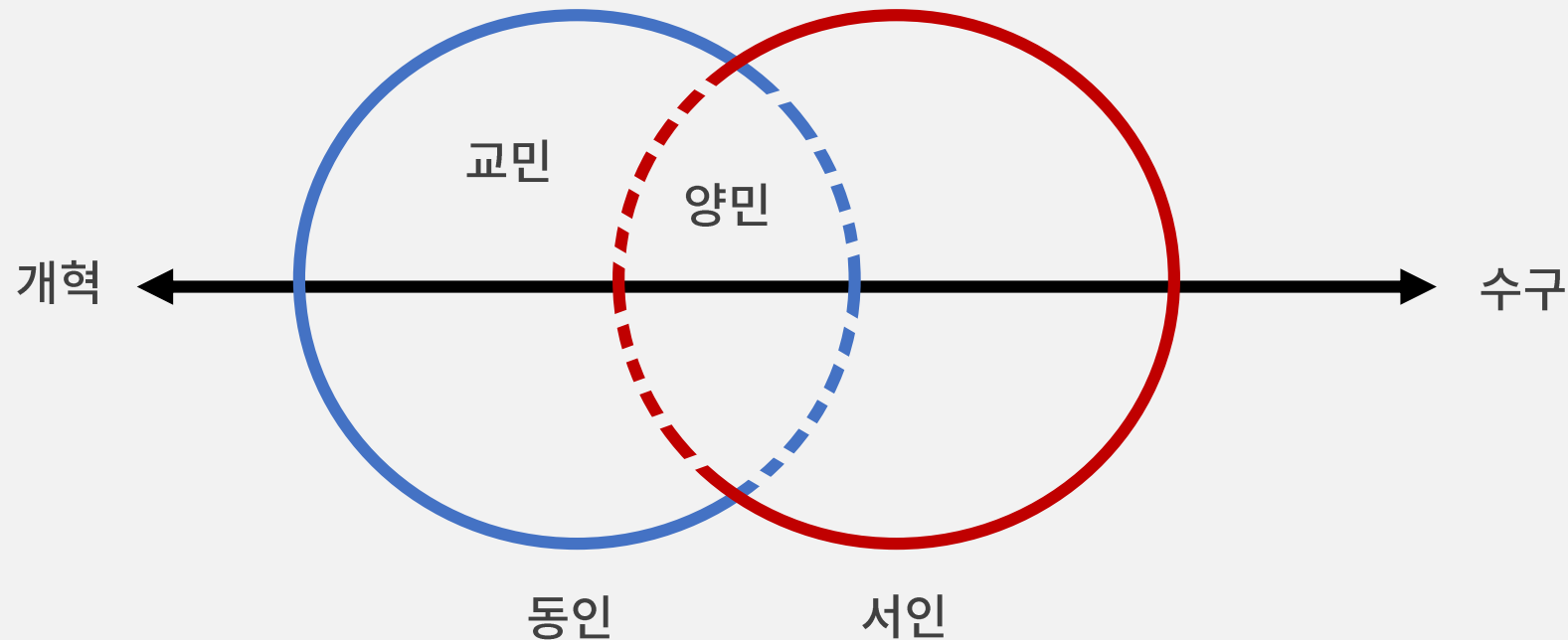
동인과 서인

동인
교민론자

VS

서인
양민론자

선조대 사림파의 노선 투쟁



1592년 임진왜란 이전

- 동인이 정국 장악
- 교민록적 개혁안 추진:
<소학> 강조, 향약 실시, <주자가례>

1592년 임진왜란 이전

- <경국대전>에 기초한 친족 질서 → 성리학적 친족 질서
 - <경국대전> 친족 질서:
남녀평등, 재산 제사 균분 상속, 남자의 장가혼(丈家婚) 등

1592년 임진왜란 이전

- 성리학적 친족질서:
남존여비(男尊女卑),
재산 제사 남자 우대(장자 우위 상속),
여자의 시집혼 등

1592년 임진왜란 이전

- 동인이 제3지대에 있던 선진계 사림파(예: 이이) 공격
 - 이이: 이조낭청권 혁파 주장, 당쟁의 폐해 제기
 - 이이, 성혼 등이 서인으로 전향
- 1589년(선조22) ‘정여립의 난’ 이후 서인 집권

1592년 임진왜란 이전

- 1591년(선조 24년) 왕세자 책봉문제로 서인 몰락, 동인 집권
- 임진왜란 시기: 동인 주도
 - 대표 인물: 류성룡, 김성일, 이원익, 이덕형, 이순신 등

붕당의 폐해

-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
- 당쟁이 심화되면서 개혁론, 국가 개조 등은 밀림
- 이후 300년 동안 붕당체제가
조선왕조의 독특한 정치체제로 남음

마무리

- 사림파의 택현
 - 선조를 국왕으로 추대한 후 성리학 세계 완성을 고대
- 수많은 개혁이 난무하여 사림파의 분열 초래

다음 차시에는

- 성리학적 지식인, 선비의 탄생

SOURCES

[출처01] 문화재청

<https://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1638857&ccbaKdcd=21&ccbaAsno=02380000&ccbaCtcd=33>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COC

기획·조정

이준희·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